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6장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6장, 인쇄 77~89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5

> ❓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지켜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손해 보고 참는 '온유'가 정말 복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셋째 복이 세상의 성공 공식과 정반대라는 데서 출발한다. 세상은 힘과 자기주장으로 땅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온유가 '심령의 가난'과 '애통'에서 자라 나오는 복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복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내가 나를 고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남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을 실례로 들어 온유가 무엇이 아닌지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땅을 얻는다'는 약속은 지금 누리는 만족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미래를 함께 뜻한다고 푼다. 끝으로 온유는 성령만이 만드시는 성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유하지 못할 핑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세상과 정반대인 복

로이드 존스는 팔복 전체에 흐르는 특징부터 다시 짚는다. 팔복은 자연인, 곧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점이다. 세상은 힘, 세력,

본질이 다른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세상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주변 비그리스도인에게 수수께끼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고백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그는 경고한다.

이 말씀은 주님 당시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 줄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했다.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위해 팔복을 복음서 앞부분에 두었다는 것도 그래서라고 그는 본다. 그런데 이 복은 오늘의 교회와도 대조된다. 그는 당시 교회에 퍼진 생각을 예로 든다. “조직된 원수와 싸우려면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기구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조직과 세력과 제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늘리지 않고 계속 줄이신 것이 바로 이 영적 방법이다.

1. 팔복은 자연인의 생각과 정반대다
2.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수수께끼여야 한다
3. 유대인의 군사적 메시아관을 주님이 물리치셨다
4. 거대 조직을 의지하는 교회도 이 복과 어긋난다
5. 기드온: 하나님은 수를 줄여 일하신다

> **마태복음 5:5**
> 설교 본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역설적 약속
>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사사기 7:2**
>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를 줄이신 이야기의 배경. 힘과 수를 의지하지 않는 영적 방법
>
>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는 세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 2. 팔복의 순서, 그리고 더 깊이 찌르는 셋째 복

이 복은 앞의 복들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각 복은 다음 복을 암시하고 다음 복으로 이어진다. 먼저 심령의 가난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아는 상태다.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여 애통으로 이끈다. 애통은 다시 온유로 이끈다.
로이드 존스는 팔복이 진행될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셋째 복은 앞의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살피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한다.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사람이다.

왜 더 어려운가. 앞의 두 복은 내가 나를 보는 문제였다. 나는 내 무능과 죄를 보고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런데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문제로 넘어간다. 남이 나에게 똑같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개한다. 남에게 정죄받느니 스스로 정죄하는 편을 택한다. 내가 나에게 비추던 '서치라이트'를 이제 남이 나에게 비추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그래서 온유는 앞의 복들보다 더 우리를 낮춘다.

1. 심령의 가난 → 애통 → 온유로 이어진다
2. 팔복은 갈수록 더 어렵고 깊다
3. 내가 나를 고발하는 건 견딜 만하다
4. 남이 나를 고발할 때 반응이 온유의 시험대다
5.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앙의 출발 전이다

> **마태복음 5:3**
> 첫째 복 심령의 가난. 온유의 전제 조건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4**
> 둘째 복 애통. 죄를 깨달은 슬픔이 온유로 이어짐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3. 온유한 사람들의 실례

로이드 존스는 정의보다 실례를 먼저 보여 준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사다. 어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고르는데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다.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기록된 사람이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가능성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았다. 다윗은 이미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사울의 부당한 대우를 참았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때 인기 없는 진실을 전했다. 그 때문에 고립되었다. 오늘이라면 '비협력자'로 불렸을 것이다. 그는 뒤에서 하는 험담을 견디며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과 바울을 든다. 바울은 여러 교회와 동족에게 고통을 당했다. 특히 자기를 헐뜯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온유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고의 실례는 주님이다. 주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소개하셨다. 박해와 조롱을 참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이 그리는 모습에서 그 온유가 드러난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시고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온유이고 참된 겸손이다.

1. 아브라함: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
2.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 특권을 내려놓았다
3. 다윗: 왕이 될 것을 알고도 사울을 참았다
4. 예레미야·바울: 고립과 비방 속의 온유
5. 최고의 실례는 종이 되신 그리스도다

> **창세기 13:8-9**
>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게 함.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온유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민수기 12:3

모세가 지상의 누구보다 온유했다는 기록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무엘상 24:6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음. 부당한 대우를 참는 온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11:28-29

주님이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심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부드러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요한복음 14:10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심.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온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4. 온유가 아닌 것

실례들을 보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다. 온유는 일부 순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 이 점은 실례로 증명된다. 주님을 제외한 이 인물들은 모두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윗은 강하고 독특한 성품이었다. 예레미야는 자기 속이 끓는 가마솥 같다고 했다. 바울은 막강한 지도자이자 강인한 성품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유했다. 그러므로 온유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그는 온유로 오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낸다. 첫째, 태만이 아니다. 둘째, 무기력이나 안이함이 아니다. 셋째, 타고난 싹싹함이 아니다. 그런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어떤 개가 다른 개보다 싹싹한 것과 같다. 넷째, 인격의 연약함이 아니다. 다섯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하는 타협 정신도 아니다. 차이를 덮고 무조건 동의하자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착각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은 온유가 아니다. 앞의 인물들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였다. 순교자들은 온유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온유는 큰 능력과 권세와 함께 갈 수 있다. 또한 온유는 겉태도만이 아니라 속 정신의 문제다.

1.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다
2. 강한 성품의 다윗·바울도 온유했다
3. 태만·무기력·싹싹함은 온유가 아니다
4. 무조건 평화를 원하는 타협도 아니다
5. 순교자처럼 진리 앞에 강한 것이 온유다

> 갈라디아서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5

온유는 모든 신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는 생래적 기질이 아닙니다."

📜 5. 온유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의 정의는 이렇다.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 뒤에 올 수밖에 없다. 내가 악한 죄인임을 보아야 교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나 지위나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에 대한 민감성을 '타락이 가져온 삶의 가장 큰 저주'라고 부른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방어하는 데 삶을 소비한다. 온유한 사람은 방어하지 않는다. 내 안에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나에게 기회만 준다면" 하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존 번연은 이것을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했다.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은 남이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온유를 다시 정의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고맙게 여기는 것이다. 이 온유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부당한 대우에도 오래 참는다. 주님이 욕을 당하셔도 욕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듯이 말이다. 다음으로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다. 남의 말과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연다. 삼위의 제2위이신 주님조차 아버지가 주신 것에 전적으로

1. 나를 바로 보는 눈이 남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2. 자랑·자기주장·권리 요구가 없다
3. 자기 방어와 자기 연민을 넘어선다
4. 보복하지 않고 부당함을 오래 참는다
5. 배우려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빌립보서 2:5-6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의 모델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21-23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신 주님의 발자취

>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20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2:19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속함. 보복을 내려놓는 근거

>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6.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온유한 사람은 이생에서 이미 땅을 얻는다. 그는 늘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국 작가 골드스미스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바울은 더 잘 표현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빌립보 교회에 선물을 고마워하면서도 “나는 풍족하다”고 했다. 비천에도 부요에도 처할 줄 안다고 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다. 온유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이다.

둘째, 이 약속은 미래를 가리킨다. 성도는 세상과 천사까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고난을 참으면 그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이렇게 풀어 준다.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온유하게 받아라. 그러면 그와 함께 땅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이것이 온유의 원리다.

1. 온유한 사람은 지금 이미 만족한다
2.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3.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의 것이다
4.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5.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 **고린도후서 6:10**
>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현재의 소유
>
>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illegible]

빌립보서 4:11-13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 지금 땅을 얻은 사람의 모습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21-22

만물이 다 너희 것. 시기할 필요 없는 이유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2-3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함. 미래의 상속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로마서 8:17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12

참으면 그와 함께 왕 노릇 함. 고난과 온유의 보상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7. 온유는 성령만 만드신다 — 그래서 핑계가 없다

온유는 자연인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온유해질 수도 없다. 세상을 떠나 수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온유해지려 애쓰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성령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성령만이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무거운 결론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교회 밖 사람은 온유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한다. 둘째, 성경의 실례들을 살핀다. 셋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본다. 넷째, 우리의 사람됨이 철저히 불완전함을 부끄럽게 고백한다. 다섯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자아와 절교한다. 그래야 자기희생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다.

1. 자기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다
2. 온유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다
3. 성령을 받았다면 온유하지 못할 핑계가 없다
4. 말씀 묵상, 실례 살피기, 주님 바라보기
5. 자아와 절교하고 주님께 소유되기

> **갈라디아서 5:22-23**
>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주장의 배경(설교에 장절 없음)
>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온유
자기를 바로 본 사람이 남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품이다.

팔복
마태복음 5:3~12의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준다.

자연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타고난 상태 그대로의 사람이다.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마음이다.

애통
자기 죄와 죄성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다.

생래적 기질
노력이나 은혜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이다.

자기에 대한 민감성
늘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대우받는지 신경 쓰며 방어하는 상태로, 로이드 존스는 타락의 가장 큰 저주라 부른다.

기업(상속)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물려받는 몫으로, 여기서는 '땅'이 그 상징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온유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남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며, 심령의 가난과 애통에서 자라난다.
- 온유는 타고난 순한 성격이나 타협이 아니다. 진리 앞에서 강하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성령의 성품이다.
- 온유한 사람은 보복과 자기 방어,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 그는 지금 이미 만족 속에 땅을 얻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상속한다.
-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유하지 못할 핑계가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자아와 절교하는 것이 그 길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